내 삶은 유품인가 위탁물인가?

(출17:1~7)

3.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은 유품인가 위탁물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삶은 유품인가 위탁물인가?'

유품(遺品)은 고인이 되신 분이 생전에 사용하다가 남긴 물건으로 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유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 유품을 남긴 고인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든지 전혀 상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 점에 오늘 우리는 착안하기로 합니다.

유산이나 유품일 경우에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비유적인 의미에 합당한 내용으로 이렇게 유언 등을 통하여 죽은 다음에도 자기의 뜻이 살아있도록 한 물건들이 아니라, 갑자기 죽었을 경우에 남겨진 유품들이 있을 것이고, 유산도 어느 정도를 할당해서 넘겨줄 뿐이지 그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탕진을 해도 할 말이 없고, 그것을 잘 운용해서 많이 불려도 제몫이기에 죽은 당사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물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내 품을 떠나보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떠나보낸 뒤에도 여전히 위탁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그 처리 상태에 대해 평가를 해서 잘못 될 경우에

는 수탁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유품과 위탁물의 차이입니다.
이 유품과 위탁물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신앙생활이 원활한 오리지널의 상태로 진행 될 수 있고 재미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의 허와 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말은 유품으로 마음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쓰고 있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 동안 신경 쓰던 삶의 문제들은 유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인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잘 처리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하는 위탁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십중팔구로 이는 잘못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위탁이 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신앙 때문에 생기는 항상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신앙 때문에 생기는 범사의 감사가 사라지고, 쉬지 않는 기도도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신앙의 효과와 신앙의 열매와 신앙의 은총을 다 제거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유품이 되지 못하고 위탁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시내 산 북서쪽 20km지점으로 시내 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은 쉬는 장소, 원기회복, 평야의 의미를 담고 있고, 르비딤의 현재 이름은 “와디 페이란”으로 ‘와디’라는 곳은 평상시에는 물이 매우 풍부한 곳인데, 이스라엘이 도착한 시점에는 건기로 물이 하나도 없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디(wadi)는 우기에는 물이 넘치다가 건기에는 모래바닥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물을 잔뜩 기대하고 르비딤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고 낙담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마라에서의 불평은 불평이 아닐 정도로 모세를 돌로 칠 기세까지 되었으니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르비딤은 쉼의 장소요, 원기를 회복한다는 장소요, 굴곡이 없는 평야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소가 되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곳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원기회복이 아닌 탈진상태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7절에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

라"라고 나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면 원기회복인 하늘의 기운으로 충만하고, 삶이 지치지 않고 이 바쁜 세상에서 쉼의 장소에서 항상 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굴곡이 없는 평야에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쉼의 장소가 다툼의 장소가 되었고 좋은 뜻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당신 마음의 고백은 살전5:16-18절에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고, 또한 빌4: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가 감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시험하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 말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인데,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하지 않고 시험한다고 합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의 뉘앙스가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이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은 고층 빌딩 로비에 술주정뱅이가 들어와서 난장을 피우고 있는데, 그 때 사장님하고 전무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광경을 보고 전무님이 꽥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경비원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월급 받으면서 저런 술주정뱅이 하나 단속 못하고 뭐하는 것이냐?" 딱 요 말의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로 옮겨서 본문을 다시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 광야에서 마실 물 하나 제때제때 공급 못하시면서 그러고도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 우리가 애굽의 열 신을 다 뒤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드렸으면 그 값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수험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잘 하고 계시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경비원이 술주정뱅이 하나를 내쫓지 못해?'
경비원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고 경비원의 역할이 보이지 않으니 경비원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는 이야기입니다. 수험생들의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듯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 하나 제때에 공급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어? 우리가 그 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면서 취직시켰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할이 보이지를 않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지금 빵점이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가 못 하시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바로 이 땅에서의 내 삶의 환경에 대해 내가 원하는 바가 정답이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환경에 대해서 원하고 그려놓은 정답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역할을 잘 하시는가 못 하시는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는 삶에 환경에 대한 정답과 거리가 먼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안 계시는 거냐? 계신다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정답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이 내게 주어질 수 있어? 술주정뱅이가 들어와서 난장을 치고 있으니 경비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정답과 거리가 먼 현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헌금내고 봉사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는데? 그렇게 취직을 시켜드렸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잘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런 현실이 나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이유와 오늘 본문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구약성경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만나를 간수 하고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뒤에, 지금 이 르비딤에서의 맛사와 므리바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삶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안식일에는 집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 밖에는 삶의 터전이 있고, 이 삶의 터전에서 활동을 해야 집 안에서 사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인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죽으라고 것이고,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바로 만나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땅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없고 거래나 무역이나 장사나 사업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비를 내리듯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얻는 것이나 곡식을 통해 밥을 먹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마음 놓고 삶에 대해 죽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니 안식일에 마음 놓고 죽겠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르비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이 선민들의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께 맡겨지는 것이고, 그 맡겨진다는 것은 유품을 말하는 것으로 내 삶이 유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자식에 대해 죽으면 자식은 유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식에 대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위탁물로 취급합니다. 그럴 때에는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정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식은 이렇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이라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평가기준을 갖고서 내가 손을 떼었으니 위탁을 하는 것으로, 자식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답과 다르게 전개될 때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내가 헌금 내고 십일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안식일이 죽는 것이라고 해서 죽었는데 이게 뭐야?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냐? 내 삶과 내 사업에 대해 죽으라고 해서 죽었으니 내가 갖고 있는 정답과 비슷하게나마 가야하는 것 아니냐?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 80점은 나와야지 어떻게 낙제 점수가 나오느냐? 내가 생각하는 소원과 기준과 그림과는 너무 상관없이 되어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거야? 내가 하나님께 위탁을 했는데 수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라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쉼이 없습니다. 불평하느라 쉼이 없고 지금이 불만족스러워서 쉼이 없고,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갖고 내 삶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사업이 유품이 되었다는 것이고, 유품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고인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품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유품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처리를 하셔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위탁물이 되어서 수탁자인 하나님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다보니 불평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르비딤은 쉬는 장소, 원기회복의 장소인데 다툼의 장소이자 시험의 장소로 바뀌고, 그래서 탈진하고 기진하고 지치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사람이 찌들어서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일 년 단위로 죽기인 유월절을, 일주일 단위로 죽기인 안식일로 바꾸시고, 일주일 단위로 죽기인 안식일을 매순간 죽기인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장소는 르비딤으로 쉬는 장소이고 원기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원기회복은 내 마음이 하늘의 기운이 충만한 상태인, 하

나님으로 충만하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늘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이 땅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풍파로 보일지라도 평지인 것은 르비딤의 이름이 평야이기 때문입니다. 풍파가 일어나도 평지이고, 골짜기에 있어도 평지인 것은 내 마음은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이고, 하늘에서 보면 다 평지일 뿐입니다. 골짜기가 있어도 내 마음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땅에서 기어 다닐 때에나 골짜기가 문제가 될 뿐, 르비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기로 결심했으면, 물이 없는 이 상황은 유품으로, 이 유품을 맡으신 하나님 마음대로 처리하시는 것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을 것이고, 마라와 엘림의 관계에서처럼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또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죽는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죽음, 유월절의 죽음의 모든 의미와 능력을 함축해 놓은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 전체 삶의 모든 내용을 다 유품이 되게 하고, 유품에 대해서 고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위탁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 내가 위탁자가 되고 하나님을 수탁자로 전락시켜서 수탁자의 처리 능력과 처리 결과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 아직도 내 삶은 이 모양이냐? 돈 조금만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천지를 지으시고 내 아버지라고 하시고 독생자까지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꼴이 이게 뭐냐”라는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에 기준이 있기 때문이고 유품이 되지 못한 채 위탁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위탁물로 남아있는 한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탁자로 전락되어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계속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삶을 끌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평과 원망과 충돌이 일어나고, 삶에 대해 탈진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내가 만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유품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주어져도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유품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다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나는 기껏해야 두수, 세수를 내다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백수, 천수를 내다보시면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완전히 실패

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백수, 천수 앞의 성공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이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유품이 되어야 하고, 유품이 되지 않는 한 내 무지렁이 같은 능력과 지혜와 평가기준을 가지고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큰 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신뢰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는 이제 모든 세상 삶에 대해서 고인과 유품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며 관심을 가졌던 모든 삶의 문제는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에 위탁물이 아닌 유품이 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실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고 있다면 저절로 스멀스멀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한 고비만 넘기면 왜 이런 현실을 주셨는지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유품입니다. 위탁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유월절의 죽음과 안식일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내용과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라도 내게 대해 유품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다시는 위탁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이 죄로 찌든 마음을 권고하시고 씻어주시고 불살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